

【오카야마시직원 복싱선수 이케야마 나오 선수 세계 챔피언에】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5월 17일, 오카야마직원 복서인 이케다 선수가 WBO 여자 아톰급 왕좌 결정전에서 조제베루 · 파가듀안 선수 (필리핀)를 큰 차의 판정으로 꺾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케다 선수는 상황을 살핀 일 라운드에서는 파가듀안 선수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론 적극적으로 나가 좌우의 강력한 펀치로 몇 번이나 로프로 몰아가 압도. 또한 44세에 세계챔피언 획득은 남녀를 통틀어 국내 최연장자의 쾌거라고합니다.

그리고 5월 23일 이케야마 선수가 시장실로 왔습니다. 실제로 만난 이케야마씨는 공격적인 시합 때와는 정반대의 차분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직원의 이야기로는 펀치의 근원이 되는 팔의 근육은 대단하다고 함. 과연 톱 선수!)

평상시엔 복지 관계 업무에 종사하며 성실하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타입으로 평판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카야마시 직원과 복싱을 잘 양립 (공무원이므로 복싱으로 받는 보수는 일절 받지 않음)하고있는 이케야마씨는 시청 동료들과 나의 모교이기도 한 오카야마 소잔 고등학교 동문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가을에 첫 방어전이 예정되어있어, 챔피언 방어를 향해 더욱더 전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추신>

브라질 월드컵 개막까지 앞으로 10일. 국내에서도 축구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지난해 설립된 「일본 축구를 응원하는 지자체 연맹」에 가입했고, 저는 4월의 총회에서 이 연맹의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일본 대표의 활약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오카야마시에서도, 일본 대표와 일본 축구를 다양한 형태로 응원하고자 하여, 매일 매거진에서도 세계의 정점을 목표로 도전하는 일본 대표의 정보 등을 수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